



2019년 9월 셋째주

해외 ICT 표준화 동향

목차

본문 19.09.12 ITU 텔레콤 월드, 삶을 향상시키는 기술혁신을 강조하며 마무리

19.08.29 8K 협회, 가정용 TV 성능 규격 발표

단신 19.09.03 USB-IF, 썬더볼트를 통합한 USB4™ 규격 배포

19.09.05 독일 DIN, IT 제품 안전을 위한 유럽의 해법 논의

※ 게시물 보기

TTA 홈페이지 ▷ 자료마당 ▷ TTA 간행물 ▷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

1. ITU 텔레콤 월드, 삶을 향상시키는 기술혁신을 강조하며 마무리

ITU Telecom World 2019 highlights tech innovations improving lives

보도날짜 : 19.09.12

출 처 : <https://www.itu.int/en/mediacentre/Pages/2019-PR15.aspx>

■ ITU 텔레콤 월드 2019는 9월 9일~12일 동안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 125개국 약 4000명의 대표단이 참석

■ 주요 내용

- 5세대이동통신기술(5G) 및 기타 대용량회선 구축에 대한 장관 회의에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적절한 비용으로 모바일 광대역 통신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국가마다 자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
-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규제기관 간의 대화에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기존 및 혁신적인 지상/우주 전파서비스를 혼합하여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과 인구가 적은 지역에 연결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결론. 최신 무선통신기술 세션에서는 저렴한 연결성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고고도통신시스템(HAPS), 소형위성,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이 제안됨
- 최고기술책임자(CTO) 회의에서는 2020년 예상되는 "5G" 정의와 관련하여, IMT-2020 준비에 대해 토론
- '스마트 ABC' 프로그램에서는 인공지능, 은행, 스마트시티 간 공통의 최신 기술 공유
- '스마트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스타트업 기업이 참여, 국제 표준이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는 방법을 논의
- ITU는 위성통신기업과 다양한 인도주의단체에서 수립한 "Crisis Connectivity Charter"에 합류하여 긴급통신을 통한 재난 대응 개선과 준비를 강화키로 함. 또한, Cisco와 파트너십을 맺고 "Digital Transformation Initiative"를 착수, 디지털 변환을 위한 교육 등을 시행 예정
- 금번 행사에서는 ITU Innovation Challenge의 우승자와 24명의 여성 기업가들로 구성된 'EQUALS' 대표단을 처음으로 운영, 지역 사회와 전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

■ 이밖에, 'ITU 텔레콤 월드 어워즈' 시상식을 개최

- ※ 참고로, 기업 부문에서는 '의미있는 연결 솔루션(Meaningful Connectivity Solutions)' 으로 재난대응에 특화된 KT의 5G 스카이스이 수상

단신

1. 19.08.29. 8K 협회, 가정용 TV의 성능 규격 발표

- ▷ 원문제목 : 8K Association Announces Performance Specification for Consumer TVs
- ▷ 원문링크 : <https://8kassociation.com/8k-association-announces-performance-specification-for-consumer-tvs/>

■ 8K 협회*(8K Association)는 8K TV의 주요 성능 기준을 정의한 규격을 발표

- * 8K : 3,300만 픽셀 이상의 해상도를 지원하는 콘텐츠 제작, 배포 및 TV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최고 해상도 표준으로, UHD/4K 표준보다 4배 더 선명
- * 8K 협회 : 8K 콘텐츠 및 기술 생태계를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업체 간 협력체로 올해 1월 AUO, 하이센스, 파나소닉, 삼성전자, TCL의 5개 회원사로 출발, 현재 삼성디스플레이, 텐센트, 엑스페리 등이 참여하면서 16개 회원사로 확대

■ 본 규격은 8K 입력매개변수(비트 심도, 프레임 속도, 채도 서브 샘플링), 디스플레이 성능(해상도, 최대 밝기, 블랙 레벨, 색역, 화이트 포인트) 및 인터페이스 및 미디어포맷(고해상도,코덱)을 포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해상도 : 7680 x 4320 픽셀
- 입력 프레임 속도 : 초당 24p, 30p 및 60p 프레임
- 디스플레이 휘도(최대 밝기) : 600 니트 이상
- 코덱(영상압축방식) : HEVC
- 인터페이스 : HDMI 2.1

2. 19.09.03. USB-IF, 썬더볼트를 통합한 USB4 규격 배포

- ▷ 원문제목 : USB-IF Announces Publication of USB4™ Specification
- ▷ 원문링크 : https://www.usb.org/sites/default/files/2019-09/USB-IF_USB4%20spec%20announcement_FINAL.pdf

■ USB IF(Implementers Forum)은 기존 USB 3.2 및 USB 2.0 아키텍처를 보완한 차세대 USB 아키텍처인 USB4™ 규격을 발표

■ USB4 아키텍처는 인텔사에서 제공한 썬더볼트* 프로토콜 규격을 기반으로 하며, USB의 최대 전체대역폭을 2배로 늘리고, 동시에 여러 데이터 및 디스플레이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음.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기존 USB Type-C 케이블을 사용한 2레인 작동, 최대 40Gbps의 속도
- 최대 전체대역폭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다중 데이터 및 디스플레이 프로토콜
- 하위 버전인 USB 3.2, USB 2.0 및 썬더볼트3과의 호환성

* 썬더볼트(Thunderbolt) : 인텔과 애플이 함께 개발한 고속 데이터 전송 및 연결을 위한 입출력 인터페이스 규격 [출처: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최신 ICT 시사상식 2015, <http://terms.tta.or.kr>]

■ 2019년 3월 USB4 규격 개발을 발표한 이후 공식 배포로서, www.usb.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3. 19.09.05. 독일 DIN, IT 제품 안전을 위한 유럽의 해법 논의

▷ 원문제목 : IT-Produktsicherheit braucht europäische Lösungen

▷ 원문링크 : <https://www.din.de/de/din-und-seine-partner/presse/mitteilungen/it-produktsicherheit-braucht-europaeische-loesungen-345412>

- 독일 DIN은 9월 5일 IT 제품 안전과 품질 보장을 논의하는 'KITS 컨퍼런스 2019'를 개최. 이해관계자 120여명이 참여하여 미래의 IT 보안에 필요한 솔루션을 논의

* KITS(IT Security Coordination Office) : DIN의 정책자문을 담당하는 'FOCUS.ICT' 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로,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의 지원을 받아 IT 보안 표준 관련 자문과 의견 조율을 위해 설립. 'IT 보안 네비게이터'를 통해 보안 관련 표준 정보 제공 (<https://www.security-standards.de/ITSecurityGrid.html>)

- 회의의 주요 주제는 독일 정부에서 준비 중인 "IT 보안법 2.0"으로, 연방 정부는 IT 보안 레이블을 도입하여 위험에 대한 인식과 소비자의 평가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

- 이에 대해 DIN의 CEO는 유럽 차원의 솔루션이 필요함을 강조. 회의에 참여한 업계 및 협회 대표들은 디지털 세계 속에서 소비자와 독일 경제를 보호하고, 세계 시장 접근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제 규범과 표준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